

JBC HANOI 뉴스레터

제 15호

22.05.06.(금) 발행

전라북도 1호 해외통상거점센터(베트남) -JBC HANOI

- 전라북도 기업 맞춤형 베트남 바이어 발굴 및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 현지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컨설팅 등 해외 마케팅 전문 서비스
- 회의실, 비즈니스 공간, 화상미팅시스템 운영
- 전라북도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지원
- 전라북도 우수상품 상설 전시공간 운영 및 도내 기업 제품 홍보
- 바이어상담 통역지원 서비스



목 차

베트남 HOT ISSUE

p.3



베트남행 숙박·항공편 검색량 급증...월드컵개최지 카타르 이어 세계 두번째 기록

베트남 선라성에 세계최장 유리다리 30일 개장... 632m 박롱유리다리

베트남, 코로나19 건강신고 폐지

베트남 경제·금융 정보

p.10



베트남경제 회복세 공고해져...세계은행 '거시경제 평가보고서'

베트남 아파트값, 근로자 평균소득의 20배... 공급부족으로 지속 상승

베트남, 올해 최저임금 6% 인상...7월부터 적용

베트남 유망산업 관련 소식

p.5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꿈꾸는 베트남, VinFast를 중심으로

베트남에 불어오는 팻 휴머니제이션 열풍

센터소식

p.12



베트남 코로나19 현황

JBC Hanoi 소식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지원사업 안내

베트남 HOT ISSUE

베트남행 숙박·항공편 검색량 급증...월드컵개최지 카타르 이어 세계 두번째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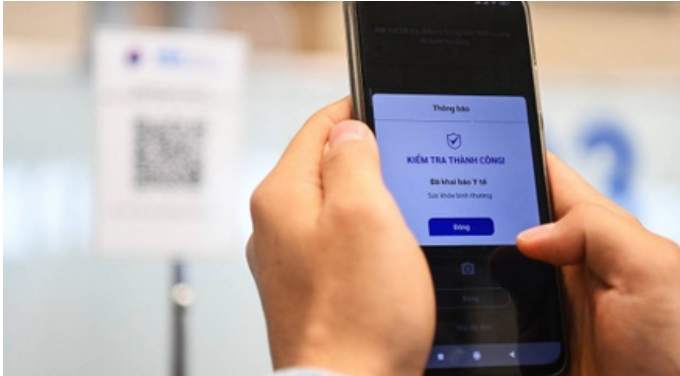
베트남이 3월 15일부터 외국인관광을 전면재개한 이후 베트남행 숙박·항공편 검색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검색량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15일 이후 베트남행 항공편 및 숙박시설에 대한 검색량은 각각 25, 50% 증가했다. 이는 오는 11월21일~12월18일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75% 이상 증가)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증가세다.

베트남 내 여행지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곳은 호치민시였고, 이어 푸꾸옥(Phu Quoc), 달랏(Da Lat), 붕따우(Vung Tau) 순이었다. 특히 4월 들어서 검색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사람들이 3월15일 이후 보름동안은 관광세를 보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이해된다. 구글의 검색 트렌드에서 '베트남 관광', '베트남 여행', 'Vietnam tourist', 'Vietnam tourism', 'Vietnam trip', 'Vietnam travel' 등의 일반적 키워드는 100~350% 늘었다. 특히 이런 일반 키워드의 검색은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 인근 국가는 물론 한국, 호주, 인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관심을 보였다.

일반 키워드 외에도 '베트남 관광비자', '베트남 여행자보험', '베트남 패키지여행' 등 비자, 보험 및 여행상품과 같은 구체적인 전문적인 키워드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처럼 베트남 관광과 관련된 키워드 급증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되돌아오고 관광시장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침체된 호텔 및 관광업계로서는 여간 반가운 통계가 아닐 수 없다. 관광 전문가들도 베트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수준이고, 예방통제 정책도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적용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관광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연기됐다가 오는 5월 하노이와 인근 지방에서 열리는 제31회 동남아시아게임(SEA Games·시게임)이 관광시장 본격회복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최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이번 시게임에는 동남아 11개국에서 선수와 지원단 등 7000명 이상이 참가해 40개 종목, 526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응원단까지 포함하면 방문객은 더욱 많아진다. 시게임은 5월12일부터 23일까지 12일동안 열린다.

베트남 HOT ISSUE

베트남, 코로나19 건강신고 폐지



베트남 정부가 입국자에 이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건강신고를 공식 중단했다. 보건부가 5일 각 성·시 인민위원회 보낸 공지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시행된 건강신고는 공식적으로 잠정 중단된다. 그동안 각 개인이 직접 작성해 신고한 건강신고 양식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 이전 14일간의 여행이력, 코로나19 의심자와의 접촉 여부, 백신 예방접종 횟수 등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보건부는 건강신고 중단이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19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최근 일평균 확진자는 5000명 이하, 사망자는 10명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성 인구의 백신 접종 완료율도 80% 이상에 이른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건부는 지방정부에 국내여행, 식당 등 공공장소 출입시 해오던 건강신고 작성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이 조치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공항, 항만 등 모든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자 건강신고를 폐지했다. 그러나 입국시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증명서 제출(탑승전)은 여전히 유지된다.

보건부는 건강신고는 모두 중단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확산 상황은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며, 5K 방역수칙(일부 제외)은 유지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위생 및 공공장소에서 방역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출처 : VNExpress

베트남 선라성에 세계최장 유리다리 30일 개장...632m 박롱유리다리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북부 선라성의 골짜기에 총길이 632m의 박롱(Bach Long) 다리가 지난달 30일 방문객들에게 문을 열었다. 이 다리는 지상 약 150m 높이에 떠 있는데, 특히 골짜기 양쪽 산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285m, 폭 2.4m 구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공식 개장 첫날인 지난달 30일 4천 명을 비롯, 전날까지 사흘간 1만5천명 가량이 이 다리를 방문했다.

업체측은 유리 바닥의 안전을 위해 프랑스 기업이 만든 초 강화유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두께가 40mm인 이 유리가 세 겹을 이루면서 하중을 견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체측은 한 번에 다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제한했다. 지상에서 다리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는 한국 업체가 만들었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회사측은 박롱유리다리를 기네스북의 세계최장 유리다리 등재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 세계최장 유리다리는 중국 후난성 서부 장가계 대협곡에 있는 430m 길이의 유리다리였다.

출처 : VNEx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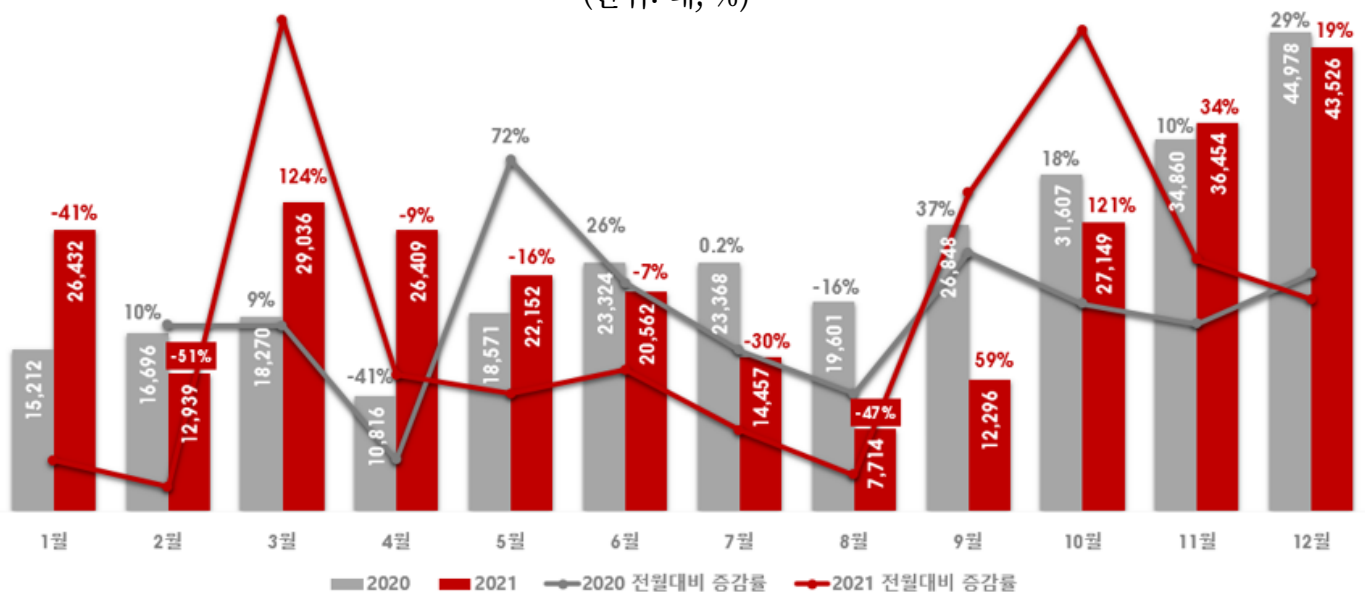
베트남 유망산업/트렌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꿈꾸는 베트남, VinFast를 중심으로

2021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 동향

2020년 초 유행이 시작된 코로나 19는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베트남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VAMA)는 VAMA 회원사 중 다수가 정부의 조업 중단 지침으로 인해 자동차 조립·생산, 판매 등을 중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1년 4분기부터 공장 조업은 정상화됐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자동차 매장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베트남 내수 생산 차량의 재고율이 증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침체한 내수 자동차 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2020년 6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지 조립·생산 자동차 등록비를 50% 감면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내수 조립·생산 자동차 대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2021년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재 확산과 더불어 정부가 강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업 및 생산이 중단됨은 물론 소비도 다시 큰 폭으로 위축됐다. 2021년 4월에 시작된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 대수 감소는 8월까지 이어져 2021년 8월에는 내수 조립·생산 차량 전월 대비 47% 감소, 판매 대수 7,714대로 판매 대수의 경우 베트남 자동차 판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별 자동차 판매대수 추이 및 전월 대비 증감률(2020~2021)>
(단위: 대, %)



*주: 베트남자동차생산자협회(VAMA) 회원사(혼다, 도요타, 마쓰다, 미쓰비시, 기아 타코 등) 판매량 통계에 VAMA 비회원사인 현대 TC Motor와 VinFast의 판매량을 임의 합산

[자료: VAMA, 현대 TC Motor, Vinf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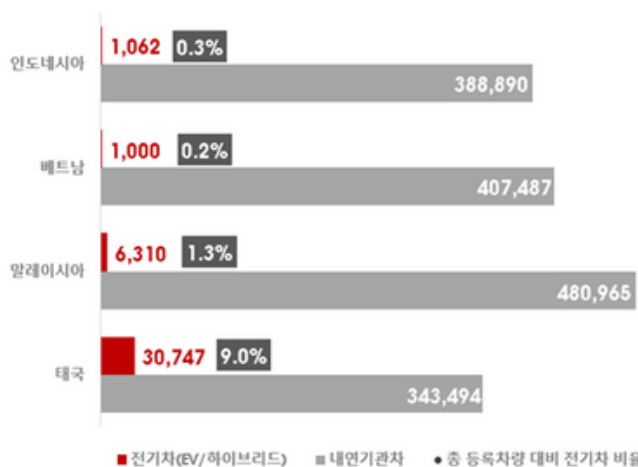
2021년 중순, 현대 TC Motor는 베트남 현지 조립·생산 자동차 판매 역사상 유례없이 침체한 내수 자동차 시장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현지 조립·생산차에 대한 등록비 50% 감면을 재 시행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트남 정부는 고심 끝에 2021년 11월 26일 자로 내수 자동차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등록세 50% 감면 시행령(103/2021/ND-CP)을 발행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베트남의 현지 조립·생산차에 대한 등록비 50% 감면 혜택은 2022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속할 예정이다.

베트남 전기차 시장 동향

베트남 등록소(Vietnam Registry)에 따르면 2020년 등록된 베트남 자동차는 총 40만 7,487대이며, 이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1,000대로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이 중 EV는 1%이며, 나머지 99%는 모두 하이브리드(HEV/PHEV) 자동차이다.

베트남 주변 국가의 경우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2020년 국가별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각 9.0%, 1.3%가 전기차이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0.3%에 불과해 베트남과 상황이 유사하다. 다만 베트남은 정부에서 2022년 3월부터 전기차 등록비 면제, 전기차 특소세 50% 감면 등 구매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베트남의 유일한 전기차 제조사인 빈패스트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입고 2022년 말부터 전면 전기차 생산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및 ASEAN 주변 국가의 내연기관차 등록대수 대비 전기차 등록 비중(2020)> (단위: 대, %)



[자료: Frost & Sullivan, 베트남 등록소, 현지언론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베트남은 2022년, 전기차를 이미 출시한 빈패스트와 포르쉐는 물론 메르세데스벤츠, 기아, 폴크스바겐 등 다양한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 출시가 임박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미국의 시장 조사업체인 Frost & Sullivan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조사한 결과, 베트남 조사대상자의 33%는 전기차 구매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베트남은 인구 구조의 70%가 35세 미만일 정도로 젊고, 인터넷 사용이 친숙한 국가이므로, 젊은 세대 위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Frost & Sullivan은 내연기관 차에 비해 높은 구매가격과 충전 인프라의 부족은 베트남의 전기차 시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내다보았다.

베트남에서 '22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관련 신규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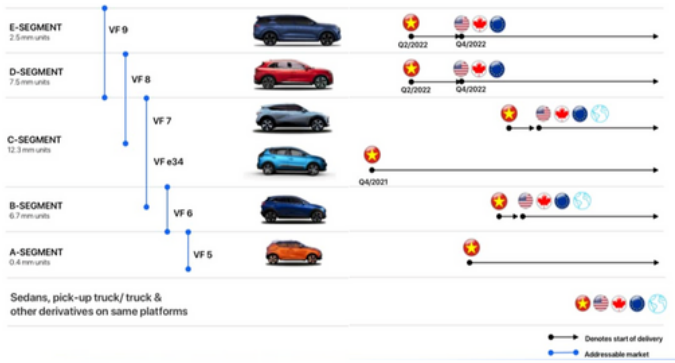
베트남 정부가 전기차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전기차 등록비를 면제하는 것과 전기차 구매 시 발생하는 특별소비세를 차종별로 감면하는 것이다. 2022년 1월 15일자로 발행된 ‘각종 등록비 관련 시행령’(10/2022/ND-CP)의 제2장 제8조 제5항의 c)에는 2022년 3월 1일부터 3년간 전기차 등록비가 면제된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이후 2년간 전기차 구매자의 최초 등록비는 내연기관차의 50%로 감면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2022년 1월 11일 9인승 이하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월 1일부터 5년간 3%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국회 87.4%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전기차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 5~15%에서 1~3%로 인하된다. 이후 2027년 3월 1일부터 4~11%가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시대를 향한 빈패스트의 야심

베트남 전기차 시장의 선구자인 빈패스트는 내연기관차 제조 및 판매를 2022년 말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연구·제조 및 내수와 수출 판매에만 집중해 빈패스트를 세계적인 수준의 전기차 전문 생산 회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이다. 이와 더불어 A-세그먼트부터 E-세그먼트까지 전 라인업을 공개했다. 빈패스트는 내수용인 VF e34와 VF5를 제외하고, 최고급 트림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 2023년부터 판매할 예정이며, 준중형 트림인 B와 C-세그먼트는 전 세계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빈패스트는 전기차 개발 초기 단계부터 베트남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북미, 유럽 시장 공략을 계획해 왔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에는 이미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곧 네덜란드 사무소도 개설할 계획이다.

<빈패스트의 전기차 라인업 및 전세계 지역별 출시 로드맵 (2021~2024)>



[자료: VinFast]

베트남 최초의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공장 착공

빈패스트는 전기차의 연구·개발·제조·판매와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제조공장까지 착공하면서 차세대 전기차 회사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빈패스트는 최근 테슬라, BMW, 포르쉐, 도요타, 닛산 등의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관련 전문가 및 고위 임원을 영입했다. 빈패스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을 활용하는 가상비서 혁신 기술 뿐 아니라 타 자동차 브랜드의 전기차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제시하며 경쟁사에 도전하고 있다.

빈패스트 내수시장 공략에 박차

빈패스트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익숙한 베트남 자국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판매전략을 사용해 전기차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중 하나는 전기차 부품 중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리스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고정 비용을 지불하는 'Fixed' 배터리 정액제 플랜과 500km 이상 주행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Flexible' 배터리 변액제 플랜으로 배터리 리스를 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유지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유지보수를 전부 빈패스트가 부담하고, 소비자 구매 부담을 줄여 소비자가 전기차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0년 20만km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조건도 걸었다. 마지막으로 빈패스트는 베트남 최초로 2022년 1월 6일 출장 서비스를 공식 론칭했다.

이처럼 빈패스트는 편리한 서비스와 저렴한 유지비, 제품 신뢰도를 차별화해 베트남 내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신이 보는 베트남 전기차의 미래

Allied Market Research는 2027년까지 세계 전기차 시장이 80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빈패스트는 세계 전기차가 성장하는 과도기에 해외로 진출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자 한다. 빈그룹 회장은 2022년 초 한 인터뷰에서 빈패스트 전기차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디자인, 기술, 설계 등에 있어 모두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삼고 개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고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갖춘 결과, 국제적 관례에 따르면 신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7~54개월이 걸리나 빈패스트는 18개월 만에 신차를 개발하는 혁신을 이루었다고 자부했다. 선택과 집중, 효율적인 자동화 전략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품질의 전기차를 2년 내에 만들어 낸 것이다.

포브스는 순수 전기차 회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빈패스트의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포브스는 렉스 리서치 선임분석가의 평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자동차 시장의 미래는 넷제로를 향해 이동 중이며, 빈패스트와 같은 신생 자동차 회사는 수십 년간 엔진과 부품을 개발해온 기존 내연기관차 회사들과 경쟁하기보다 전기 파워트레인에 초점을 맞춰 미래 지향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시사점

베트남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발전할 여지가 많다. 약 97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 중 절반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는 대기오염과 교통혼잡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35년을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바이오 연료 자동차 등의 친환경 차를 배기가스 기준에 맞게 생산할 것을 독려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2년 1인당 연간 GDP 목표가 3900달러에 도달하리라 전망한다.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시장경제가 전개될 경우 베트남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자동차 시장 역시 2022년 연초보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의 전기차 지원책, 빈패스트의 전기차 100% 전환 목표와 더불어 한국 기업도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베트남 유망산업/트렌드

베트남에 불어오는 펫 휴머니제이션 열풍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 시장의 높은 성장세

베트남에서 반려동물을 사람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애완동물 전용 사료 및 영양제 등 반려동물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며 펫 리조트, 애완동물 장례 서비스 등 파생 서비스산업 또한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연도별 세계 금 수요 변화>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E)
총합	39.6	46.5	55.8	62.9	71.9	83.5
펫푸드	31.9	38	46.3	52.5	60.2	70.4
- 개·고양이 사료	29.2	35	43	49.1	56.6	66.6
- 기타 반려동물 사료	2.7	3	3.3	3.4	3.6	3.8
기타용품	7.7	8.5	9.5	10.4	11.7	13.1

[자료: 유로모니터(Euromonitor)]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 시장의 높은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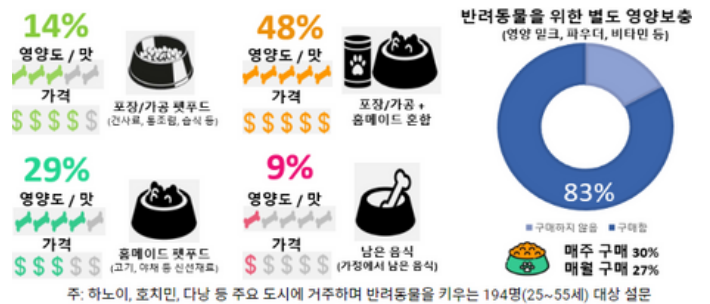
2021년 기준, 베트남의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 시장은 약 7200만 달러 규모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시장 규모가 무려 80%나 성장했다. 2775만 마리로 추산되는 반려동물의 개체 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5.9%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중산층 성장, 급격한 도시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연관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특히 2018년 ‘개와 고양이 도축 및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이후 개를 식용하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반려동물을 인간 및 가족처럼 대하는 ‘펫휴머니제이션 (Pet Humanization)’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도시 부유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부유층들은 자국 반려동물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수입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수입품의 원산지는 태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이며 주로 전문 펫샵을 통해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펫샵으로는 하노이·호치민·다낭 등 대도시에 위치한 Pet City, Pet Lovers Center 등이 있으며 한국산 반려동물 용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반려동물 건강을 위해 지갑을 여는 베트남 소비자

<베트남 반려동물 식품 사용 행태>



[자료: Intage Market Research, “Pet care in Vietnam”]

최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지갑을 여는 베트남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인티지마켓리서치(Intage Market Research)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시중에서 고가로 유통되는 펫푸드를 반려동물에게 먹이고 있으며 응답자의 83%가 사료 외에 영양 밀크, 비타민 등 별도의 영양보충제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향후 펫푸드 및 영양보충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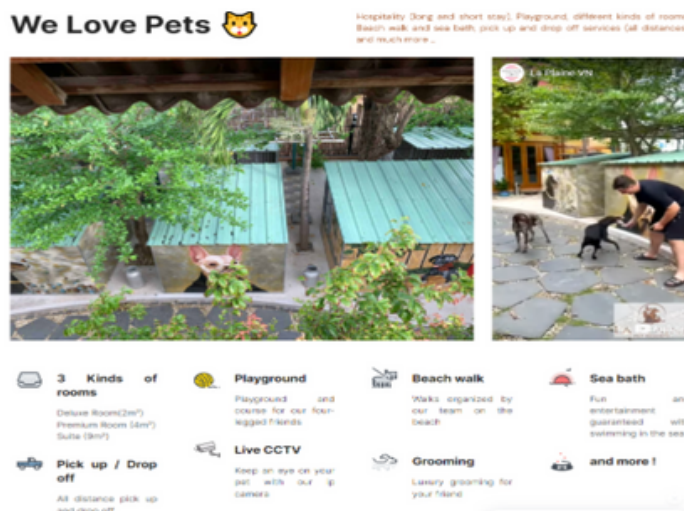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식품 구매 시 재료와 영양성분 등을 고려하기 시작함에 따라 기능성 식품 등으로 반려동물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육식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가 곡물에 대한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곡물을 원료에서 배제한 ‘그레인 프리’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반려동물 식품은 여전히 주로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펫샵을 통해 반려동물 식품의 73.2%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펫샵의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조언이 상품 구매까지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주요 유통채널인 펫샵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소규모로 개인이 운영하던 형태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화 및 프랜차이즈화하고 있으며 호텔·병원·스파 등을 결합한 종합 프리미엄 펫샵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전문 리조트 등 고급화되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베트남 프리미엄 펫 리조트>



[자료: La Plaine (laplaine.vn.com)]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펫호텔, 펫스파, 펫카페 등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출장,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울 때 이용할 수 있는 펫호텔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베트남 내 펫호텔의 경우 대부분 방마다 CCTV가 설치돼 있어 맡긴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직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 및 펫시터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설연휴(Tet)와 같은 긴 연휴 기간에는 평시에 비해 20~30% 이상 수요가 급증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장례식 등과 같은 이색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으며, 1박에 71만5000베트남 동(약 36만 원)에 달하는 반려동물 전문 리조트와 같은 호화 서비스 또한 인기를 얻고 있다. ‘펫 리조트’에서는 반려동물의 숙식뿐만 아니라 픽업, 해변산책, 놀이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의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사람 간 접촉이 감소하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펫콕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펫 휴머니제이션’의 확산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게 됨에 따라 가격이 비싸더라도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노이에서 KOKO PET샵을 운영하는 Mr. Hoang Anh Tu 씨는 “베트남에서 피부 및 눈 건강 등 기능성 반려동물 제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제품을 소싱할 때 가격보다는 해당 제품의 기능성 유무와 원료 및 테스트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기능성 프리미엄 제품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구매 결정 과정에서 제품의 원재료, 영양성분까지 꼼꼼히 챙겨보고 있어 영양성분 및 기능을 강조하고 원산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패키징이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 용품의 주요 유통경로인 전문 펫샵이 최근 대형화 및 프랜차이즈화하고 있어 대형 유통망을 확보한 현지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베트남 경제·금융 소식

베트남경제 회복세 공고해져…세계은행 ‘거시경제 평가보고서’

세계은행이 1분기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베트남의 경제회복세가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WB)은 최근 내놓은 ‘베트남 거시경제 평가보고서’에서 1분기 수출중심의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이같이 밝혔다. 베트남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5.03%(통계총국 잠정치)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아직 2%p 낮은 수준이지만 산업 전부문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산업건설과 서비스 부문이 각각 6.4%, 4.6% 성장하며 1분기 경제성장률에 4.3%p 기여했다. 산업건설의 성장률은 주로 제조업의 강력한 대외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서비스부문 실적은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지난 2년간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금융·은행·보험·IT 등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 반면, 숙박·요식업 부문은 뒷걸음질(-1.8%) 치면서 코로나19 수준을 밀돌았다.

3월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 전월 4.1%였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9.4%로 코로나19 이후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소매판매 증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및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상품판매가 10.7% 증가한데 힘입은 것이다. 3월 무역수지는 1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FDI(외국인직접투자) 등록 및 투자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4%로 최근 7개월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정부목표치인 4% 이내로 통제됐다.

세계은행은 2021년 CPI는 전체적인 수요 부진에 따라 억제된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 봉쇄조치가 완화된 지난해 3분기부터 CPI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CPI와 근원물가 상승은 내수회복 및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물가동향을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경제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첨단산업 세제혜택 ▲기술 및 인재양성 투자확대 ▲물류비용 경감 등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VNExpress

베트남 경제·금융 소식

베트남 아파트값, 근로자 평균소득의 20배... 공급부족으로 지속 상승



베트남 집값이 근로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호레아)에 따르면 2016~2021년 베트남 주택가격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집값은 근로자 평균소득(연봉)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레아는 최근 주택가격 인하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해결책으로 저가아파트 및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했다. 호레아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동산시장 신규주택 공급량 가운데 고급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과 수요 불일치가 시장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레아에 따르면 2020년 아파트 신규공급 물량 가운데 저가아파트 비중은 1%에 그쳤으며, 지난해 신규공급 아파트 1만4443호중 고급아파트 비중이 74%에 달한 반면, 저가아파트는 단 1채도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레아는 “이로 인해 2016~2021년 호치민시의 토지세는 82조9320억동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5.9%에 그쳤다”며 “저가아파트 및 사회주택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충되고 중복된 법률과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면, 개발지연 해소와 비공식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게돼 토지세수가 약 10%까지 높아질 수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호레아는 ▲부동산 및 상업주택개발 투자자에게 추가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의 부동산조사 중단 ▲주택구매자에게 주택소유권 발급 ▲상업주택개발지의 20% 사회주택개발 의무화 ▲건전한 회사채 시장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출처 : Tuoitre

베트남, 올해 최저임금 6% 인상...7월부터 적용



올해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6% 인상됐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열린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6%로 결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7월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은 18만~26만동(7.8~11.4달러)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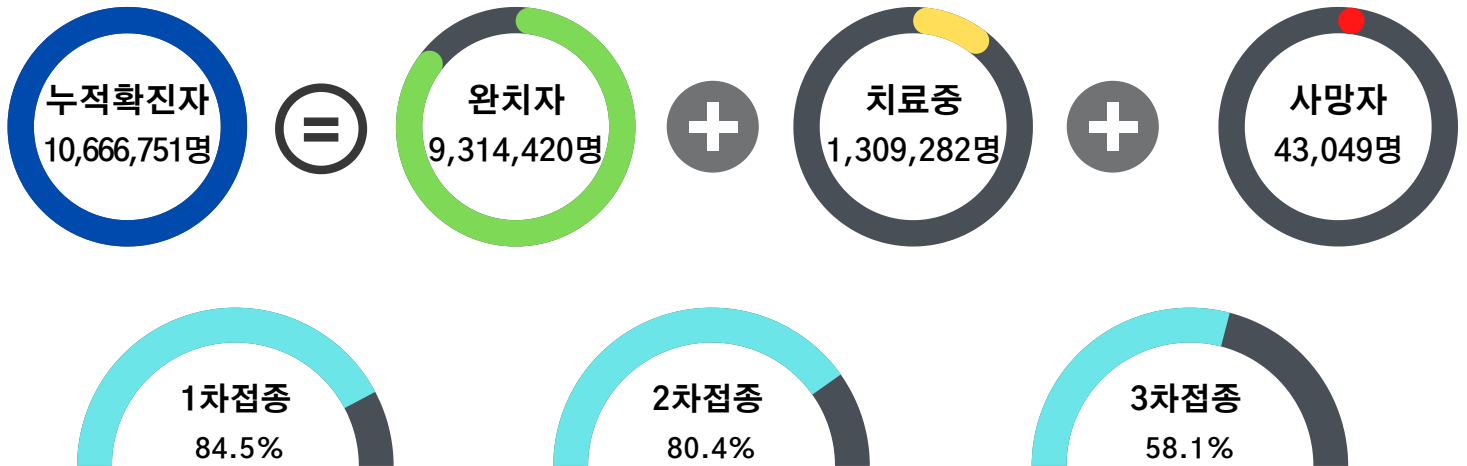
레 반 탄(Le Van Thanh)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겸 최저임금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지 않지만 노사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며 “노동자들의 생계를 충분히 보장할 순 없지만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최대한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정부의 신속한 결정과 시행을 당부했다.

호앙 광 풍(Hoang Quang Phong)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적용시기를 7월이 아닌 내년 1월로 해야한다는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재계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응오 유이 히에우(Ngo Duy Hieu) 베트남노동총연맹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당초 최저임금 인상폭을 7~8%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이번 결정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히에우 부위원장은 이어 “이번 인상률은 노사간 고통분담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노동자들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했다.

출처 : Tuongtruong

베트남 코로나19 현황



2022년 5월 6일 오후
베트남 보건부 발표

JBC Hanoi 소식

글로벌파트너사업



- 참여기업별 잠재 바이어사 발굴 및 제품 홍보
- 5월 27일 월간보고서(바이어리스트) 제출 예정

샘플발송지원사업



- 2022년 샘플발송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상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진행사업 안내

- 전라북도 온라인전시관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참가신청 : http://www.jbba.kr/bbs/board.php?bo_table=sub01_09&wr_id=889
- 2022년 해외통상거점센터 샘플발송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참가신청 : http://www.jbba.kr/bbs/board.php?bo_table=sub01_09&wr_id=845
-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전담지원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참가신청 : http://www.jbba.kr/bbs/board.php?bo_table=sub01_09&wr_id=896



www.facebook.com/JBC.Hanoi



<https://www.youtube.com/channel/UCzhMgxxVnrZS-5A9rmwrwEg>

1101, 11th floor,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84 24 3855 4190 / jbc.yongjae@gmail.com
